

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



신한 「K-성장! K-금융! 프로젝트」

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
대한민국의 내일은 더 밝아집니다.

신한은 'K-성장! K-금융! 프로젝트'를 통해

AI·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물론,

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 제조업과 뿌리산업 전반에 기술금융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.

내일의 가능성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으로 K-성장, K-금융을 선도하겠습니다.



신한「K-성장! K-금융! 프로젝트」

신한은 올해 하반기 기술금융 지원을 1조 8,789억 원 늘려 누적 42조 8,186억 원(10월말 기준)을 달성하며
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로 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.